

지역사회 음주문화실태 결과분석-사례연구

박 동 준¹⁾

요 약

A시 B구에서 2005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주민(4개 동민)과 해당 구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문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을 지역주민과 구청직원의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 각 그룹별로 주요 설문문항에 대하여 답변항목별 분포를 살펴보고, 성별분포와 연령대별 분포를 SPSS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Excel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음주와 관련된 주요 홍보대상을 파악한 후 그 대상을 목표로 음주관련 사업의 집중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용어: 음주문화, 설문조사, 빈도분석

1. 서 론 및 설문서 배부

정부와 시단위에서는 음주에 관한 자료가 파악되어 있으나 구청단위까지는 자료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B구청 보건소에서는 2005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주민과 구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문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홍보 집단대상을 파악하고, 그 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집중함으로써 알코올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알코올로 인한 각종 사고·질병을 예방하고 알코올 문제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제발의 기초자료를 준비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B구청 보건소에서는 1997년에 창립된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1]의 자료를 활용하여 설문지의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모두 3면으로 작성되었는데 설문서의 1면에는 간단한 안내문과 함께 응답자들의 성별과 연령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2면과 3면에는 모두 16개의 객관식 문항과 2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되어 있고, 가장 마지막에는 감사의 말씀으로 설문서가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문항은 음주의 빈도, 음주의 양, 음주운전 경험여부, 금주의 결심여부, 음주로 인한 피해여부, 음주로 인한 비난여부, 가족이나 친척의 입원경력여부 등등의 객관식 문항과 음주로 인한 가족이나 친척의 입원대상자와 음주예방사업에 대한 조언의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B구청은 모두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의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현재 대략 110,000명이다. 각 통에 속하는 가구의 수들은 다양하지만 대략 40가구에서 50가구로 되어 있다. 지역주민들의 설문자료를 얻기 위해서 보건소의 담당자들은 구청관내의 통장들을 직접 만난 다음 10부씩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각 통장들은 각 통에 거주하는 10명의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설문서의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16개부서 약 600여명의 총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청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보건소의 담당자들이 모두 16개 부서별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다.

1)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3동 599-1, 부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부교수,
Email: djpark@pknu.ac.kr

2. 설문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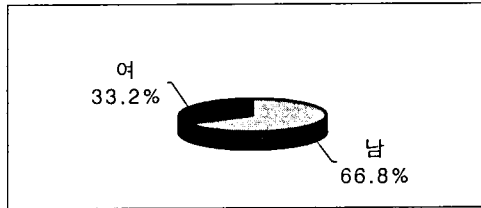
2.1 응답자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응답자의 분포는 전체지역주민 110,000명 가운데 1000명에게 설문서를 배부하였고, 전체구청 직원은 600명 가운데 250명에게 배부하여 각각의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크기는 약 1% 와 42%에 해당하고 설문서 응답자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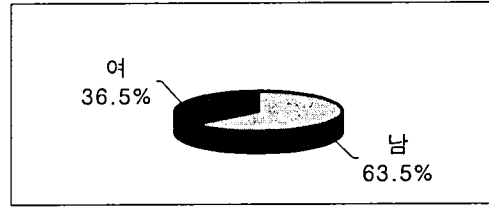
<표 1> 성별·연령대별 분포

구분	성별		합계	연령대별							합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주민	661	329	990 [†]	73	141	290	292	151	42	3	992 [†]
직원	155	89	244 [†]	33	102	84	29	0	0	0	248 [†]

† 응답자들 가운데 설문지에 성별이나 연령을 기록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총인원임
 응답자들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남자는 661명으로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67%, 여자는 329명으로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구청직원은 남자가 155명으로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64%, 여자는 89명으로서 전체의 36%를 차지하므로 두 집단의 성별의 분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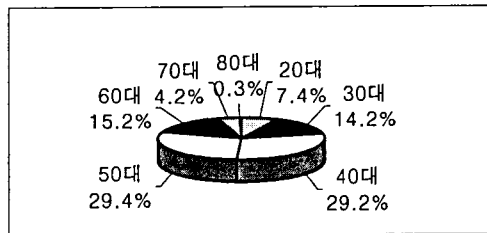


<그림 1> 지역주민의 성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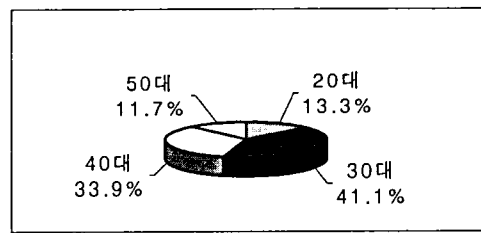


<그림 2> 구청직원의 성별분포

지역주민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40대와 50대가 각각 290명과 292명으로 각각 29%로서 가장 많고 전체 응답자의 58%를 차지한다.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50대, 40대, 60대, 30대, 20대, 70대, 80대의 순서이다. 그리고 80대는 단 3명으로 전체의 0.3%를 차지하므로 향후 분석시 70대 42명과 합하여 연령별로 나타낼 때 70대 이상으로 다시 분류한다. 구청직원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30대와 40대가 각각 102명과 84명으로서 각각 41%와 34%로 가장 많고 전체 응답자의 7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20대, 50대로서 각각 33명과 28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그림 3> 지역주민의 연령대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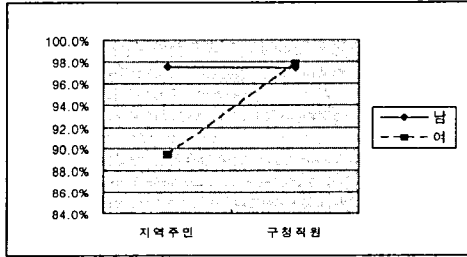
<그림 4> 구청직원의 연령대분포

2.2 응답자의 음주경험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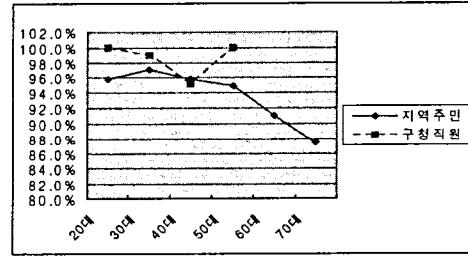
<표 2> 음주경험율에 관한 설문문항

분석항목	관련 문항
음주경험율	1.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니까? ①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②지난 1년 동안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지만 그 이전에는 마셨다 ③지금까지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다

음주경험율은 위의 문항에 대한 답변 가운데 ①번과 ②번을 “음주경험이 있다” 로 분류하고 ③번을 “음주경험이 없다” 로 분류하여 아래의 결과를 구하였다.



<그림 5> 성별 음주경험율



<그림 6> 연령대별 음주경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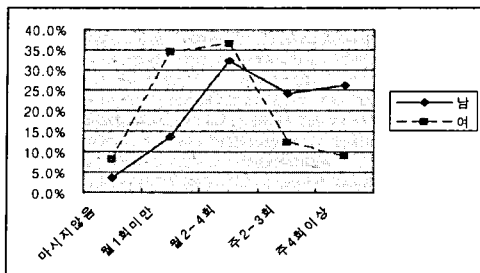
지역주민의 음주경험자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98%, 89%로 차이가 나는 반면, 구청직원의 음주경험자는 남녀가 각각 97%와 98%로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고 여자가 약간 높다. 지역주민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88%로 가장 낮고, 30대가 97%로 가장 높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음주경험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구청직원은 20대와 50대는 음주경험율이 100%이고 30대가 99%, 40대가 95%로 가장 낮다. 일반적으로 구청직원은 지역주민보다 과거의 음주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2.3 응답자의 월간음주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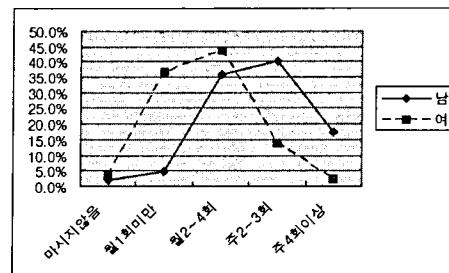
<표 3> 월간음주량에 관한 설문문항

분석항목	관련 문항
월간음주율	2.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①전혀 마시지 않는다 ②월1회 미만 ③월2-4회 ④주2-3회 ⑤주4회 이상

얼마나 자주 음주를 하는가의 질문에 다섯 가지 문항(전혀 마시지 않는다, 월 1회 미만, 월 2~4회, 주 2~3회, 주 4회 이상)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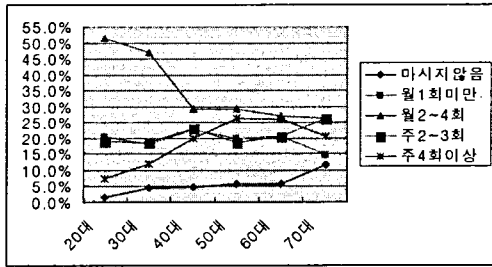


<그림 7> 지역주민의 성별 월간음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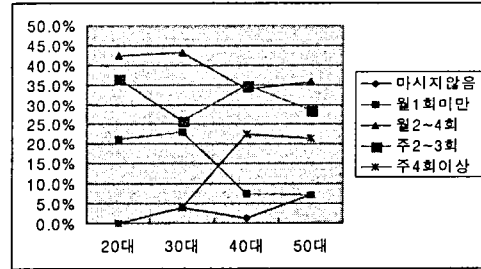


<그림 8> 구청직원의 성별 월간음주량

분석결과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지역주민의 경우 남녀 모두 월 2~4회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다섯 가지 문항 중 일부를 통합하여 월 2~4회 이상(월 2~4회, 주 2~3회, 주 4회 이상) 음주를 하는 남녀의 비율은 각각 83%와 58%로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음주를 자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구청직원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구청직원의 경우, 월 2~4회 이상 음주 하는 남녀의 비율은 각각 93%와 60%로 나타난다. 지역주민과 구청직원의 월간음주율을 비교할 때 여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남자의 경우 구청직원의 음주의 빈도가 지역주민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난다.



<그림 9> 지역주민의 연령대별 월간음주량



<그림 10> 구청직원의 연령대별 월간음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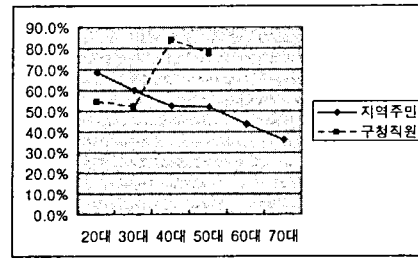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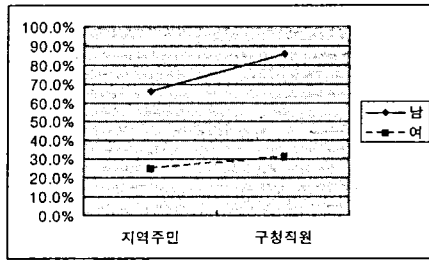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월간음주량을 살펴보면 구청직원의 경우 40대가 주 2~3회로 월간음주량이 가장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주민과 구청직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월 2~4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리고 20대와 30대의 월 2~4회 음주량의 비율은 지역주민과 구청직원 모두 높으며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지역주민의 경우 20대부터 70대 이상으로 갈수록 월 2~4회 월간음주량의 비율이 52%에서 27%로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구청직원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구청직원 모두 주 2~3회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 걸쳐 약간의 변화를 보이며 변하지만 지역주민이 약간 낮게 나타난다. 지역주민과 구청직원 모두 주 4회 이상이 40대를 지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4 응답자의 고위험음주율 분포

<표 4> 고위험음주율에 관한 설문문항

분석항목	관련 문항
고위험음주율	2.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①전혀 마시지 않는다 ②월1회 미만 ③월2-4회 ④주2-3회 ⑤주4회 이상 3.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정도 마십니까? (술에 관계없이 전체 잔수) ①1-2잔 ②3-4잔 ③5-6잔 ④7-9잔 ⑤10잔 이상

고위험음주율은 위의 2번 문항에서 ③, ④, ⑤로 대답하고 3번 문항에서 ③, ④, ⑤로 대답한 경우를 “고위험음주 이다”라고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위험음주가 아니다”라고 분류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성별로 구분하면 지역주민 가운데 고위험음주를 하는 남녀는 각각 67%와 25%이고, 구청직원은 남녀가 각각 86%와 31%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 구청직원은 지역주민에 비해 고위험음주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9> 성별 고위험음주율

<그림 10> 연령대별 고위험음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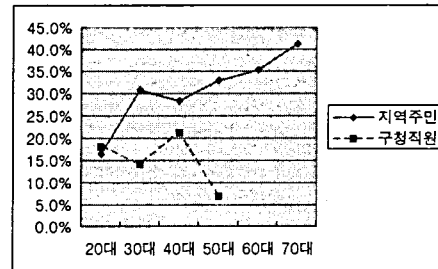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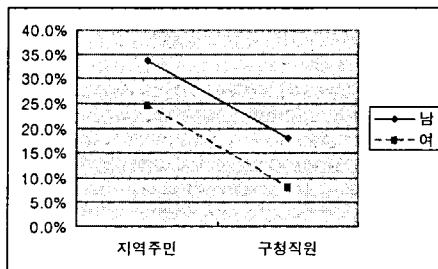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지역주민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위험음주율이 69%에서 34%로 점차적으로 감소하지만 20대부터 50대까지는 여전히 고위험음주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구청직원의 경우는 20대부터 50대까지 고위험음주율은 55%에서 78%까지 약간의 변화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구청직원의 고위험음주율은 지역주민과 비교해 볼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2.5 응답자의 금주결심율

<표 5> 금주결심에 관한 설문문항

분석항목	관련 문항
금주결심율	12.귀하께서는 술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금주결심율은 위의 문항에 나타난 대로 금주결심경험여부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11> 성별 금주결심율

<그림 12> 연령대별 금주결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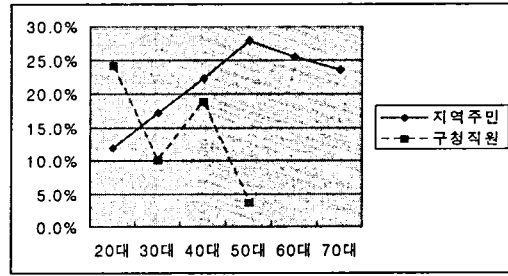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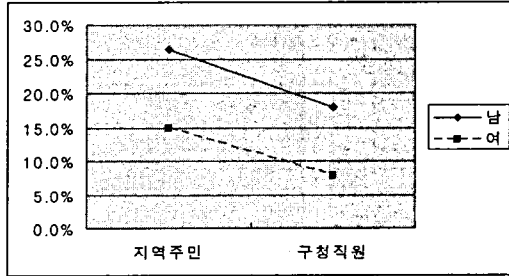
지역주민과 구청직원의 금주결심경험율은 남녀가 각각 34%와 25%, 18%와 8%를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이 구청직원보다 상대적으로 금주결심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남자가 여자보다 금주결심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로 보면 지역주민의 금주결심경험율은 2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16%부터 41%까지 변화를 보이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금주를 결심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청직원의 금주결심율은 40대가 21%로 가장 높으며 20대부터 50대까지 21%에서 7%까지 약간의 변화를 보이며 감소한다. 지역주민과 비교해 볼 때 20대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구청직원의 금주결심율이 낮게 나타난다.

2.6 응답자의 문제음주자율

<표 6> 문제음주자율에 관한 설문문항

분석항목	관련 문항
문제음주자율	13.귀하께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비난" 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문제음주자율은 위의 문항에 따라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림 13> 성별 문제음주자율

<그림 14> 연령대별 문제음주자율

술마시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여부에 따라 문제음주경험유무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주민의 문제음주자율은 남녀가 각각 26%와 15%이고 구청직원의 경우 18%와 8%로서 남자의 문제음주자율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로 분류하면 지역주민의 경우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12%에서 28%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50대를 지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는 반면, 구청직원의 경우 20대의 24%에서 감소하여 40대에 18%로 증가하였다가 50대의 4%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30대와 40대에서는 지역주민이 구청직원보다 문제음주자율이 약간씩 높게 나타나며 증가하였다. 20대의 경우 지역주민은 12%인 반면 구청직원은 24%로 매우 높고, 50대의 경우 지역주민은 28%인 반면 구청직원은 4%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3. 결론

지금까지 표본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 1000명과 구청직원 250명에 대한 음주문화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았다. 월간음주량은 구청직원의 경우 40대가 주 2~3회의 음주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역주민과 구청직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월 2~4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고위험음주는 구청직원의 경우 40, 50대가 약 80%로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주민은 연령대 증가에 따라 69%에서 34%로 감소하였다. 금주결심율은 지역주민은 20대의 16%에서 70대의 41%까지 연령대가 증가하며 점차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구청직원의 경우 20대의 18%에서 감소하다가 40대의 21%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50대의 7%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음주자율은 지역주민의 경우 20대부터 50대까지 12%에서 28%로 증가하다가 70대의 23%로 하락하였으나 구청직원의 경우는 40대에서 18%로 증가하였고 20대의 24%에서 50대의 4%까지 감소하였다. 따라서 구청직원의 40대 남성과 지역주민의 40, 50대 남성들을 음주에 관한 중점홍보대상으로 선정하여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음주로 인한 개인적인 건강 및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여야겠다.

참고문헌

[1]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http://www.kodcar.or.kr>